

최희섭 부상 장기화 되나

'빅쇼이' 최희섭(28·KIA)의 옆구리 부상이 예상 외로 심각하다. 다음 출장 경기를 장담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엔 2군으로 강등될 수도 있다.

지난 23, 24일 광주 롯데전에 결정했던 최희섭은 지난 25일부터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3연전도 빠져 5경기를 연속 결장했다.

KIA 구단은 "정밀검진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는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 부위기러니 부상의 장기화마저 우려된다.

KIA측은 일단 27일 서울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한 차례 더 최희섭의 정밀검진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2군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희섭은 데뷔전인 지난 19일 잠실 두산전에서 베이스런 도중 두산 2루수 정원석의 팔꿈치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친 뒤 통증을 호소해 왔다.

최희섭은 당시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지만, 20일과 22일 경기에 선발 출장해 견제함을 과시하는 듯 했다.

5경기 연속결장...통증 심해져

타격연습 못하고 러닝훈련만

최악의 경우 2군행 가능성도

그러나 23일 오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부터 타격연습도 포기하고 가벼운 스트레칭만 겨우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열 KIA 타격코치는 "지난 주 광주전까지만 해도 타배팅까지는 해줬으나, 현재는 러닝 외엔 아무런 훈련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최희섭의 부상이 장기화 될 경우 KIA의 전력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섭의 영입에 따라 양병 타자 서른을 발출하고 투수 로드리게스를 영입한 KIA는 중심타선의 무게감이 확 떨어졌다.

장거리 타자로 이재주, 홍세완 등이 있지만, 상대 투수를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는 전무하다.

사실 KIA는 최희섭의 합류로 홈런쇼와 관중몰이 흥행 등 많은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3경기에 나가 14타수 2안타(타율 0.143)의 부진을 보인 데다 부상마저 겹쳐 이래저래 걱정만 늘게 됐다.

서정환 KIA 감독은 "최희섭을 염두해 두고 장성호를 외야로 돌리는 등 대대적인 포지션 변경까지 단행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부상)이 생겨 안타깝다.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랄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볼넷·실책으로만 4점 얻어낸 KIA SK와 끝내 비겨

KIA가 '특급 마무리' 한기주의 실수가 발미가 돼 4시간 56분의 혈투 끝에 올 시즌 첫 번째 무승부를 기록했다.

KIA는 27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07년 프로야구 SK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스코비의 6.1이닝 9피안타, 4볼넷, 4탈삼진, 2자책점 역투에도 불구하고, 찬스마다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연장 12회 접전 끝에 4-4로 비겼다.

0-2로 뒤진 7회초 KIA는 2사 만루에서 이윤규와 김원식, 장성호의 3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행운의 3점을 얻어 승부를 3-2로 뒤집었다.

곧바로 마무리 한기주를 투입한 KIA는 7회와 8회를 실점없이 잘 막았으나, 결국 9회말 김재현에게 115m짜리 우월 동점포를 허용하며 승부를 연장전으로 돌렸다.

10회와 11회를 득점없이 넘긴 KIA는 연장 12회 초 1사 만루에서 이현곤의 3루수 앞 땅볼 때 상대 수비 실책으로 장성호가 홈을 파고들며 1점을 추가,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 했다.

장성호는 타이밍상 홈에서 아웃 될 상황이었으나, 상대 3루수 나주환의 송구가 장성호의 헬멧을 맞고 옆으로 흐르는 바람에 홈런의 득점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KIA는 돌아온 마지막 수비 때 결국 결승점을 지키지 못하고 SK에게 또 다시 1점을 내주며 무승부로 마감했다. 이날 문학구장은 전남 만석(3만400석)에 이어 2만8천 825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

이 밖에 롯데는 '전국구 에이스' 손민환(8이닝 6안타 무실점)의 눈부신 쾌투를 앞세워 LG에 6-0으로 대승했고, 현대는 삼성을 3-1로 누르고 올 시즌 상대전적 6승 2패로 삼성 킬러의 명성을 이어갔다.

또 대전구장에서는 두산이 9회 안경현의 결승타에 힘입어 한화에 6-5 승리를 거뒀다. 미국프로야구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두산 투수 이성학은 8회 등판해 0.2이닝을 퍼펙트 처리하고 타선의 도움으로 국내 첫 승을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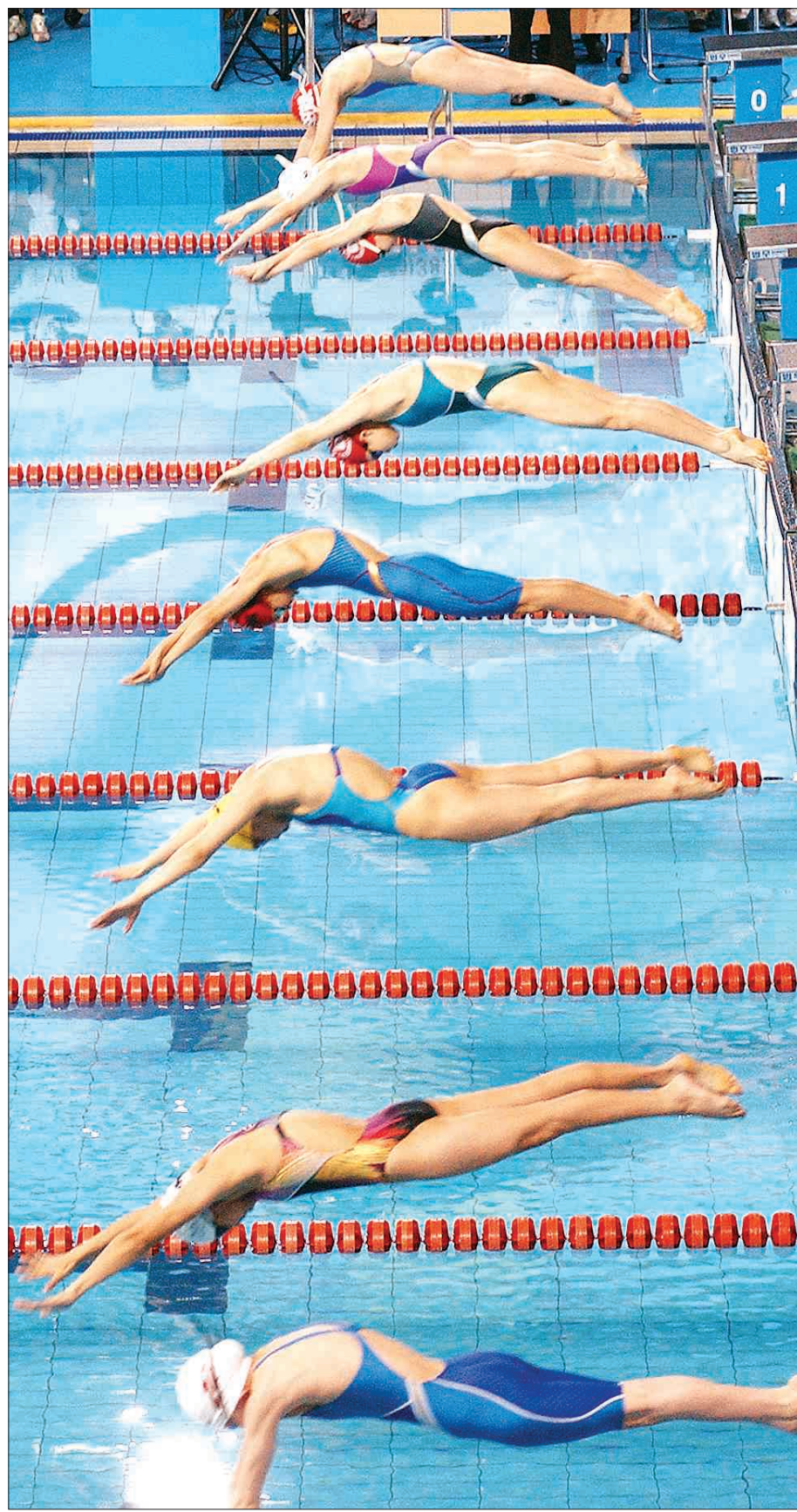
한편 KIA는 지난 26일 열린 SK전에선 상대 이진영에게 연타석 3점 홈런을 내주며 3-7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팬티 달리기' 약속지킨 SK 이만수 수석코치

인천 문학구장의 3만400석이 모두 들어찬 지난 26일 KIA-SK전 클리닝 타임 때 이만수 수석코치가 팬티 차림으로 문학구장을 돌고 있다. 이만수 코치는 지난 달 29일 LG와의 홈경기 후 "앞으로 홈 10경기 안에 문학구장이 만원이 된다면 속옷을 입고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겠다"고 약속했었다.

/연합뉴스



27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초등부 평영 50m 결승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백차승 7K...시즌 2승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의 우완 투수 백차승(27)이 안정된 투구로 선발 투수의 입지를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백차승은 27일(한국시간)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속아내며 1점(비자책점)만 주는 호투로 시즌 2승(2패)째를 신고했다. 10일 디트로이트전에서 박찬호, 김선우에 이어 한국인 투수로는 세 번째로 완투승을 거두며 시즌 마수길이를 신고한 뒤 17일 만이다.

백차승은 서재응(30·래퍼베이 테블레이

스),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 등 올해 선발로 뛰고 있는 한국 투수 중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며 일약 대표적인 코리아 빅리거로 떠올랐다.

에이스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팔꿈치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틈을 타 4월24일 텍사스전에 시즌 처음으로 등판한 백차승은 이날까지 7경기에 선발로 등판했고 4차례나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실점 이내 투구)를 펼치며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전대운·최진호 3관왕

(정광중)

(치평중)

역도 남중부 94kg급·94kg급서 각각 '금'

소년체전 2일째...광주 금 13개·전남 11개

'중학성 역사(力士)' 전대운(정광중)과 최진호(치평중)가 역도에서 각각 3관왕에 오르며 광주시의 중반 상승무드에 힘을 실었다.

전대운은 27일 포항 해양과학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남중 94kg급에서 인상 126kg(종전 125kg), 용상 154kg(종전 153kg), 합계 280kg(275kg)을 기록해 3개의 화생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최진호도 남중 역도 94kg급에서 인상 115kg, 용상 144kg 합계 259kg을 들어올려 역시 3관왕에 올랐다.

광주는 또 장현우(광주체육중)가 레슬링 남중 그레코로만형 54kg에서 대전 오대영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김아라(광주체육중)와 여태구(광주체육중)

도 각각 태권도 여중 웰터급과 남중 라이트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광주는 단체종목의 경우 농구에서 방립초가 인천 송림초를 48대 36으로 꺾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초등부 야구 수창초는 서울 수유초를 8대 1로 꺾고 역시 금을 예약했으며 여중 탁구 경신중은 부산 영선중을 4-3으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확보, 금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전남은 이날 김천 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열린 남초 인라인롤러 3,000m에서 안익현(광양제철초)이 5분32초40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육상 김성은(여선중)과 유수용(나주중)도 각각 남중 원반던지기 5,000m 경보에서 55m 76cm와 23분25초59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유도에서는 고성길(무선중)이 남중 90kg급이하에서 금메달을 보냈다.

김윤아(나주초)는 인라인롤러 여초 300m 타임레이스에서 31초056으로 가볍게 은메달을 머물렀으며 육상 황현태(체육중)도 남중 세단뛰기에서 기대했던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은메달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지성렬(관산초)도 씨름 남초 역사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안익현·송순범·김영운·장형기(이상 광양제철초)는 톨러 3,000m레이스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단체종목에서는 테니스 전남선발이 경남 선발을 꺾고 동메달을 확보했으며 배드민턴 여초와 여중 전남선발도 각각 경기선발과 유봉여중을 제압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정구 남초, 여초와 축구 순천중앙초도 동메달을 확보, 금메달에 도전하고 배구 담양동초, 여초 목포하당초,목포영화중도 동메달을 확보하고 금메달 기대를 부풀렸다.

광주는 이날 현재 금 13개, 은8개, 동12개, 전남은 금11개, 은8개, 동14개를 기록하고 있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학신기록 세워 기뻐요"

육상 남중부 최우수선수 전남체육중 황 현 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소년체전 육상 남중 세단뛰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26일 멀리뛰기 금메달에 이어 금1,은1개로 육상 남중부 최우수선수를 수상한 황현태(전남 체육중 3·사진)는 "아쉽지만 멀리뛰기에서 대회신과 중학신기록을 세워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현태는 대회 첫날 멀리뛰기에서 7m22cm로 18년만(종전기록 7m19cm)에 학생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튿날 세단뛰기에서 가볍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100m와 멀리뛰기가 주종목인 황현태는 내심 3관왕까지 욕심을 냈으나 100m와 멀리뛰기 경기 시간대가 같아 100m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담양동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박상범교사의 눈에 띄어 육상을 시작한 황현태는 체육중 문봉기 감독(49)을 만나 기량이 급성장 했다. 이후 지난해 소년체전 멀리뛰기 2위, 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우승하며 일찌감치 올 소년체전 육상 2관왕 후보로 기대를 부풀렸다.

1m70cm, 70kg으로 신장이 다소 작지만 순발력이 탁월하고 스피드가 좋아 멀리뛰기에서는 중학부 1인자로 꼽히고 있다.

문 감독은 "유연성과 착지 동작만 보완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는 1인자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생팀 앞보면 다쳐"

소프트볼 준우승 광주 하남중

27일 오전 10시 제36회 소년체전 시범종목인 광주 하남중과 서울 신정여중의 소프트볼 결승전이 열린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신정여중은 중학 소프트볼 전국최강을 자랑하는 명문. 하남중은 팀을 만들어 창단식도 하지 않은 신생팀(사진).

객관적 전력은 하남중의 열세였지만 1회전서 순천동산중을 17-2, 2회전서 충북사대부중을 17-7로 제압해, 한번 해 볼 만하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하남중은 신정여중 선수들과 체격면에서부터 고등학교와 중학생 정도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고교에서도 통할 신정여중 투수 이재지(3년)의 광속구 앞에서 하남중은 속수무책이었다. 결과는 0-9 대패.

하남중 소프트볼팀은 지난해 3월 김일권(62)교장이 동아리 형식으로 팀을 만들었다. 3학년과 1학년이 주축이 됐고, 순천동산여중에서 전학온 원혜련이라는 초중학급 투수가 있어 팀 창단 1년도 안돼 전국대회 2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3학년이 모두 졸업한 올해 선수층이 얇은 하남중으로서 소년체전 우승은 높은 벽. 이번대회에 출전한 선수도 통틀어 10명뿐이다.

그렇다고 하남중 선수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1학년(6명)과 2학년(5명)이 주축인 하남중은 1년 후인 광주소년체전 우승을 자신했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